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황 혜 정**
Hwang, Hye-J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friends and disliked peers in 169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44 preschool children, 43 primary school, 42 middle school, and 40 university students. Their descriptions of 2 same gender friends and 2 disliked same gender peers were categorized with an 81 category coding system. Comparisons across age and sex were made by a cross-tabulation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reported characteristics of friends and disliked peers varied by age, but there was no sex difference. That is, younger children liked their friends because they played together, their friends were generous and attractive, but older children liked friends because they had some similarity, were reliable allies, caring and concerned. Younger children's disliked peers were aversive, aggressive and hyperactive while older children's disliked peers were dissimilar and snobbish.

Key Words : 친구관계(friendship), 친구(friend), 싫어하는 또래(disliked peer)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28일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E-mail : jinhwang@kyonggi.ac.kr

I. 서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에서 점차 다른 사회집단으로 확대되어간다. 특히 아동은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학교생활과 방과후의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친구나 또래와 함께 보내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래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강화자로서, 모델로서, 그리고 비교준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친구나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속에서 협동이나 경쟁, 그리고 친밀감 등이 형성되기 때문에(Hartup, 1989), 친구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 등 친구나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Hodges, Malone과 Perry(1997)는 지지적인 친구가 부족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사회생활의 위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친구나 또래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우정이나 또래 수용(도현심, 1996; 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래 지지, 또래 지위(임연진·이은혜, 1994) 또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거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친구가 있는지,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등을 통해서 친구관계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거나(Berndt, 1996), 친구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 하는 친구관계의 질(이은혜, 1999; Parker & Asher, 1993)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친구나 또래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또

래 지명에 의한 인기도와 사회성 측정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었다(French, Waas & Tarver-Behring, 1986). 반면에 친구 관계의 본질, 즉 좋아하는 친구의 경우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왜 싫어하는지, 친구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만이 있어왔지, 이를 발달적 관점이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친구관계의 질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친구관계의 질에는 발달적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서 친구관계의 질이 다르다는 것인데, 아동기 중반 이후부터 단짝 친구관계가 생겨나며 친밀감이 발달하고(Berndt, 1989),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구관계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Berndt, 1986; Parker & Asher, 1993).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발달적 연구는 아동기 중반 이후부터 청년기에 집중되어 있고 친구관계의 질을 구체화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이은혜, 1999).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친구 관계의 본질, 즉 좋아하는 친구의 경우 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왜 싫어하는지를 발달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유치원 시기부터 대학생 시기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간상호작용의 관계가 발달단계의 특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 John Gottman에 의해서 개발된 ‘발달에 따른 관계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발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Gottman(1983)은 친구관계에 관한 발달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4-1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대화를 밀도 있게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로부터 아동의 친구관계에는 연령차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요한 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친구관계 형성에는 공통적인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동의와 갈등의 조절이라는 것이다.

Gottman 이론에 의하면 친구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발달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4-7세 경 유아의 단계로, 유아의 행동은 소집단 환경에서의 협동놀이에 주로 초점을 둔다. 이 연령의 유아는 환상적(fantasy)인 놀이를 함께 함으로써 가장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아동은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놀이의 기본 규칙과 공통적인 활동에 관해서 동의해야 하며, 놀이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는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들은 흥미로운 협동적인 환상놀이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며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환상적인 놀이에서 집단으로의 집중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이 연령의 아동(6-11세)은 규칙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찾으려 한다. 그들의 많은 에너지는 또래 집단의 구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집중된다. 이러한 탐구를 위한 주요한 도구가 험담(gossip)이다. 다른 사람의 규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동은 규칙의 감각을 획득하고 또한 또래집단의 수용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위반의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청소년기(12-18세)에는 자기 탐구로 초점이 이동한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점차 자기노출과 다른 사람에게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이면, 친구와의 관계는 친밀함 쪽으

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은 이전에 어린 또래집단이 동성에게 초점을 맞추던 것에 로맨틱한 주제가 더하여짐으로써 증가한다. 적절한 자기노출과 피이드백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 외에, 청소년들은 친밀함의 규칙을 익혀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제 3자와 비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의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언제 적절한지 또는 언제 적절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친밀함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조절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Gottman의 관계에 대한 발달과정이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친구와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발달에 따른 각 단계에서는 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좀 더 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데, 어린 시기에는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이유로 변화할 것이다.

한편, 생태학적 여건에 따른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Bronfenbrenner(1989)에 의하면, 아동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의 본질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인 환경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Bronfenbrenner(1989)의 생태학적인 모델은 이러한 영향력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즉 하나의 영역체계는 다른 영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한편 다른 영역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련의 연결된 체계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영역체계

가 문화인데, 문화적인 규칙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 내에서 공유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동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한정되었을 때에는 그 문화적 영향이 명백하지 않다. 문화의 좀 더 일반적인 특질은 아동들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능성은 특히 현저하다. 이 중에서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행동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행동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를 보면, 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캐나다와 상하이에서 실시된 Chen, Rubin과 Sun(1992)의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을 타는 과묵한 행동이 캐나다에서보다는 중국에서 더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Rianasari, Pidada, Nelwan과 French(1999)의 연구는 문화적인 가치가 아동의 사회적인 지각에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인주의적인 행동(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아동에게보다는 미국의 아동에게 더 존중된다. 반대로, 관대함과 도움을 주는 것(특히 학교 과제에 있어서)은 미국의 아동보다 인도네시아의 아동에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Farver, Kim & Lee, 1995). 아동은

어려서부터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함께 협조하며 사는 것을 배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들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본 연구는 Rianasari와 동료들(1999)의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도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나 싫어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친구관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친구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친구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작용하는 좋아함과 싫어함의 요인에 있어서 발달적인 차이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발달적인 변화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연령과 성에 따라 변화하는가?
- (2)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연령과 성에 따라 변화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의 발달단계에 맞춰 친구관계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

44명(26.0%), 초등학교 4학년 아동 43명(25.4%), 중학교 3학년 42명(24.9%), 그리고 대학생 40명 (23.7%), 총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80명(47.3%), 여자 89명(52.7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각각 4개씩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남녀 5-6명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 169명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유치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생	전 체
남	23	20	21	16	80
여	21	23	21	24	89
전 체	44	43	42	40	169

2. 연구도구

우정과 또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표준화된 평정척도가 사용되어 왔는

데, 기존의 범주체계가 다른 문화권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파(bias)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싫어하는 또래에 대해서 연구대상 아동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아동에게 좋아하는 동성 친구 2명과 싫어하는 동성 또래 2명을 선정하게 하고 각 사람에 대해 왜 좋아하는지 또는 왜 싫어하는지를 기술하게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Rianasari와 동료들(1999)이 개발한 코딩체계에 의해서 분석한다. 이 코딩체계는 크게 7개의 대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범주마다 세분화된 하위범주로 구분되어 총 81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어 있다(관계 7범주, 협오적 행동 14범주, 개인적 특질 46범주, 정서 조절 5범주, 적응 4범주, 권위 관계 3범주, 기타 2범주). 코딩체계의 대범주에 따른 하위범주의 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코딩체계에는 81개의 하위범주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중 두 번째 하위범주인 '유

<표 2> 코딩체계에 따른 친구관계 하위범주의 내용

대범주	하 위 범 주	범주수
관계	역사, 유사, 상이, 파벌, 비파벌, 신뢰관계, 비신뢰관계	7
외현적 행동	사회적 공격, 언어적 공격, 비공격, 약한 협오적 행동, 정의되지 않은 공격, 못살게 굴기, 신체적 공격, 도벽, 거짓말, 비인기, 유사한 행동, 일탈행동, 비일탈행동, 서툰 사회적 기술	14
개인적 특질	정직, 재미있는 교우관계, 유머, 학교숙제, 학교숙제 비협조, 도움, 비도움, 인내, 비인내, 관심, 무관심, 질투, 비밀, 비밀폭로, 개방, 협동, 비협동, 속물근성, 순수, 갈등해결, 서툰 갈등해결, 관대함, 비관대함, 좋은 차림새, 보기 안좋은 차림새, 멋진 외모, 부정적인 외모, 높은 운동실력, 낮은 운동실력, 충고, 지도력, 공손함, 무례함, 우호적, 비우호적, 높은 지능, 낮은 지능, 협담, 비협담, 수다, 침묵, 인기, 비인기, 높은 자아개념, 낮은 자아개념, 개인주의	46
정서조절	조용한 기질, 과운동, 서툰 정서조절, 뛰어난 분노조절, 서툰 분노조절	5
적응	슬픔 혹은 우울, 사회적 위축/부끄러움, 불안, 과잉행동	4
권위관계	어른과의 긍정적 행동, 어른에게 좋게 보이려는 부적절한 행동,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3
기타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	2
전 체		81

사'에 대한 설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치, 신념, 의견, 아이디어, 특성들의 유사성을 말함. 아동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나 흥미의 유사성 또는 의복의 유사성은 해당하지 않음.

(예) 우리는 같은 점이 많아요(O)

우리는 성격이 같아요(O)

우리는 같은 흥밋거리가 많아요(X)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먼저, Rianasari와 동료들(1999)에 의해서 개발된 코딩체계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하위범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대범주에 속하는 하위범주의 조작적 정의를 검토하고, 내용상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말이 가지는 뉘앙스를 고려하여 대범주 아래 분류하였다. 그 다음, 2001년 11월 중 연구대상에게 두 명의 동성 친구와 두 명의 싫어하는 동성 또래를 선정하여 그들의 특징을 기술하게 하였는데, 유치원 아동의 경우 담임교사가 대상 아동과 일대일로 인터뷰를 하여 반응을 기록하였고, 초등학교 이상은 질

문내용을 적은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본인이 친구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게 하였다. 응답한 내용을 범주에 따라 코딩하는 작업은 검사자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연구자 혼자서 하였다. 연구자는 코딩체계의 범주를 잘 숙지해서 분류하고,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여 분석하므로써 분류의 신뢰도를 높였다.

코딩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 169명 중 각 연령별로 5명씩 총 20명의 응답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에게 코딩하게 하고 연구자의 코딩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두 사람간의 코딩 일치율은 94%였다.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또래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코딩할 때, 81개의 하위범주 각각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하위범주에 해당되면 1로 코딩을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하위범주 각각에 대하여 몇 퍼센트의 연구대상이 그 범주를 기술하였는지를 산출하였다. 이를 교차분석에 의해 연령별,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81개 하위범주 중 응답이 없었던 하위범주를 제외한 28개 하위범주를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친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돌보아 주기 때문이며(47.3%) 그 다음으로는 친구

가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이다(36.7%). 또한, 친구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며(20.7%), 자신과 생각이 같고(16.6%), 외모가 멋지기 때문이라는 이유(15.4%)도 많은 경우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대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아동과 청소년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친구의 개인적인 특질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90.5%) 그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친구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38.5%).

〈표 3〉 연령과 성에 따른 좋아하는 친구의 하위범주 (%)

대범주	하 위 범 주	연 령					성			전체 (N=169)
		유치원 (N=44)	초등4 (N=43)	중등3 (N=42)	대학 (N=40)	χ^2 (df=3)	남 (N=80)	여 (N=89)	χ^2 (df=1)	
관계	역사	0	0	16.7	0	22.081***	1.3	6.7	3.200	4.1
	유사	0	4.7	21.4	42.5	33.332***	12.5	20.2	1.819	16.6
	파별	38.6	4.7	0	5.0	38.152***	16.3	9.0	2.041	12.4
	신뢰관계	2.3	2.3	19.0	25.0	16.321***	11.3	12.4	.050	11.8
	전체 [†]	38.6	11.6	45.2	60.0	21.737***	35.0	41.6	.769	38.5
외현행동	비공격	0	2.3	2.4	0	2.001	1.3	1.1	.006	1.2
개인적 특질	정직	2.3	14.0	0	5.0	9.533*	7.5	3.4	1.425	5.3
	재미있는 교우관계	4.5	9.3	2.4	20.0	9.340*	7.5	10.1	.355	8.9
	유머	2.3	14.0	11.9	0	9.143*	12.5	2.2	6.714**	7.1
	도움	15.9	46.5	14.3	5.0	25.118***	18.8	22.5	.355	20.7
	관심	0	51.2	71.4	70.0	57.822***	36.3	57.3	7.491**	47.3
	협동	9.1	0	0	0	11.639**	0	4.5	3.683	2.4
	순수	13.6	53.5	64.3	15.0	37.163***	33.8	39.3	.564	36.7
	갈등해결	2.3	0	0	0	2.858	0	1.1	.904	.6
	관대함	25.0	11.6	7.1	2.5	11.538**	12.5	11.2	.065	11.8
	좋은 차림새	0	2.3	0	0	2.948	0	1.1	.904	.6
	멋진 외모	31.8	18.6	7.1	2.5	16.763***	13.8	16.9	.312	15.4
	높은 운동실력	0	9.3	0	0	12.005**	0	4.5	3.683	2.4
	충고	0	2.3	0	2.5	2.102	1.3	1.1	.006	1.2
	지도력	0	0	4.8	5.0	4.352	3.8	1.1	1.258	2.4
	공손함	0	2.3	2.4	0	2.001	0	2.2	1.819	1.2
	우호적	11.4	25.6	2.4	7.5	12.115**	15.0	9.0	1.459	11.8
	높은 지능	9.1	27.9	2.4	0	22.396***	10.0	10.1	.001	10.1
	침묵	0	2.3	0	0	2.948	0	1.1	.904	.6
	인기	0	4.7	0	0	5.931	1.3	1.1	.006	1.2
	높은 자아개념	0	0	2.4	0	3.042	0	1.1	.904	.6
전체 [†]	79.5	97.7	97.6	87.5	11.646**	87.5	93.3	1.630	90.5	
정서조절	뛰어난 분노조절	0	2.3	2.4	0	2.001	2.5	0	2.252	1.2
기타	긍정적인 행동	31.8	11.6	2.4	7.5	18.325***	16.3	11.2	.901	13.6

*p<.05, **p<.01, ***p<.001

[†] 응답내용이 각 하위범주에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빈도로 처리하였으므로 하위범주의 합이 대범주의 수치와 다를 수도 있음. 또한, 중복응답하였으므로 대범주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먼저,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대범주별 분류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하위범주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유머가 있는 친구를 좋아하였으며($\chi^2=6.714$, $df=1$, $p<.01$) 여학

생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를 좋아하였다($\chi^2=7.491$, $df=1$, $p<.01$). 그러나, 28개 하위범주 중 위의 2개 범주에서만 성차가 있었으므로 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아동의 경우 같이 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8.6%), 멋진 외모(31.8%) 또는 그냥 좋다는 긍정적인 행동(31.8%), 무엇을 잘 주기 때문이라는 관대함(25.0%) 등이 주 이유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착하고 성격이 좋기 때문이라는 순수함(53.5%),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줌(51.2%), 그리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46.5%). 중학생의 경우는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주기 때문이라는 응답과(71.4%) 순수한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64.3%)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도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아주기 때문이라는 응답(70.0%)이 가장 많았으며, 서로 잘 알고 비슷하기 때문에(42.5%)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이기 때문(25.0%)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연령에 따라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28개의 하위범주 중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범주의 수는 18개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는 자신과 생각이 같다는 유사성($\chi^2=33.332$, $df=3$, $p<.001$),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chi^2=16.321$, $p<.001$), 자신을 잘 돌보아 주는 관심($\chi^2=57.822$, $p<.001$), 교우관계의 즐거움($\chi^2=9.340$, $p<.05$)이었고, 반면에 함께 힘을 합쳐 무엇을 이루는 협동($\chi^2=11.639$, $p<.01$), 무엇을 잘 주고 양보하는 관대함($\chi^2=11.538$, $p<.01$), 멋진 외모($\chi^2=16.763$, $p<.001$), 함께 어울려 다니는 파벌($\chi^2=38.152$, $p<.001$),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다는 기타 긍정적인 행동($\chi^2=18.325$, $p<.001$)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성이 약해지는 범주였다. 즉, 어린 연령의 아동일수록 함께 놀아주고 어울려 다니며 무엇을 잘 주고 외모가 멋진 친구를 좋아한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좋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고 그냥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생각이 같고 믿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그 관계가 재미있는 친구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가 있었는데, 정직하거나($\chi^2=9.533$, $p<.05$) 머리가 좋아서($\chi^2=22.396$, $p<.001$), 운동을 잘해서($\chi^2=12.005$, $p<.01$), 자신을 잘 도와주어서($\chi^2=25.118$, $p<.001$), 유머가 있어서($\chi^2=9.143$, $p<.05$), 성격이 밝고 우호적이어서($\chi^2=12.115$, $p<.01$), 착해서($\chi^2=37.163$, $p<.001$)가 그 이유였다. 즉,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성격이 밝고 유머가 있으며 정직하고 착한 아동을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겠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사귄 지가 오래되어서($\chi^2=22.081$, $p<.001$)라는 이유가 특별하였는데, 중고등학교 시기까지는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온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으나, 대학은 거주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온 친구가 가장 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오히려 위에서 보았듯이 생각이 같고 믿음직한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를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총 81개의 하위범주 중 응답이 없었던 범주를 제외한 38개 하위범주와 7개의 대범주를 나타낸다. <표 4>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또래가 치사하고 비열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46.2%), 그 다음으로는 짜려보거나 귀찮게 구는 등의 혐오스

러운 행동을 하고(25.4%), 욕이나 비난 등의 언어적 공격(21.9%)과 신체적 공격(16.6%)을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대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는 혐오적인 외현적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 가장 많고(60.4%) 그 다음으로는 그 또래의 개인적인 특질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57.4%).

우선,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표 4>의 대범주별 분류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범주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고($\chi^2=7.813$, $df=1$, $p<.01$) 에너지가 넘쳐 과운동을 보이는($\chi^2=5.732$, $df=1$, $p<.05$) 또래를 싫어한 반면, 여학생은 속물근성을 보이는 또래를 싫어하였다($\chi^2=4.578$, $df=1$, $p<.05$). 그러나, 38개 하위범주 중 위의 3개 범주에서만 성차가 있었으므로 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아동의 경우 귀찮게 굴거나 심하게 장난을 치는 약한 혐오적 행동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고(38.6%), 놀리거나 욕을 하는 언어적 공격(29.5%)이 그 다음 이유였다.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 공격(25.0%)과 그냥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타 부정적인 행동(22.7%)도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잘난 체하고 비웃으며 못되게 구는 등의 속물근성이 또래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53.5%), 신체적 공격(39.5%)이 다음 이유였다. 또한, 욕을 하고 놀리는 등의 언어적 공격

(27.9%)과 귀찮게 굴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등 약한 정도의 혐오적 행동(27.9%)도 또래를 싫어하는 주요한 이유였다. 중학생의 경우, 속물근성이 가장 큰 이유였고(73.8%), 무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사회적 공격(28.6%)과 약한 혐오적 행동(28.6%)이 다음 이유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속물근성이 또래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60.0%), 다음으로는 언어적인 공격(12.6%)을 들었다.

연령에 따라 또래를 싫어하는 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38개의 하위범주 중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범주의 수는 8개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싫어하는 또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상이성($\chi^2=9.590$, $df=3$, $p<.05$)과 치사하고 비열한 속물근성($\chi^2=54.657$, $p<.001$)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요하였다. 반면에 혐오적인 행동($\chi^2=13.204$, $p<.01$), 신체적인 공격($\chi^2=34.955$, $p<.001$), 과운동($\chi^2=14.638$, $p<.01$),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다는 기타 부정적인 행동($\chi^2=9.558$, $p<.05$)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 범주였다. 즉, 어린 연령의 아동일수록 혐오적인 행동을 하고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며 에너지가 넘쳐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는 또래를 싫어한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싫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또래를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은 무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사회적 공격($\chi^2=25.421$, $p<.01$)을 보이거나 과잉행동($\chi^2=9.235$, $p<.05$)을 보이는 또래를 싫어하였다.

〈표 4〉 연령과 성에 따른 싫어하는 또래의 하위범주 (%)

범주	하위범주	연령					성			전체 (N=169)
		유치원	초등4	중등3	대학	$\chi^2(df=3)$	남	여	$\chi^2(df=1)$	
관계	상이	0	2.3	0	10.0	9.590*	3.8	2.2	.331	3.0
	과벌	2.3	0	0	0	2.858	1.3	0	1.119	.6
	신뢰관계	0	0	0	5.0	6.527	1.3	1.1	.006	1.2
	비신뢰관계	0	4.7	7.1	2.5	3.484	2.5	4.5	.489	3.6
	전체 [†]	2.3	7.0	7.1	17.5	6.733	8.8	7.9	.043	8.3
외현적 행동	사회적 공격	0	11.6	28.6	0	25.421**	12.5	7.9	1.000	10.1
	언어적 공격	29.5	27.9	16.7	12.6	5.151	17.5	25.8	1.715	21.9
	약한 협오적 행동	38.6	27.9	28.6	5.0	13.204**	21.3	29.2	1.408	25.4
	정의되지 않은 공격	0	7.0	2.4	2.5	3.838	1.3	4.5	1.545	3.0
	못살게굴기	0	7.0	4.8	0	5.455	2.5	3.4	.111	3.0
	신체적 공격	25.0	39.5	0	0	34.955***	25.0	9.0	7.813**	16.6
	도벽	0	2.3	0	0	2.948	0	1.1	.904	.6
	거짓말	2.3	7.0	0	5.0	3.476	2.5	4.5	.489	3.6
	일탈행동	0	0	2.4	0	3.042	1.3	0	1.119	.6
	서툰 사회적 기술	0	0	2.4	2.5	2.150	1.3	1.1	.006	1.2
전체 [†]	68.2	83.7	61.9	25.0	31.876***	58.8	61.8	.164	60.4	
개인적 특질	비인내	0	0	0	2.5	3.244	1.3	0	1.119	.6
	무관심	0	0	2.4	5.0	4.046	1.3	2.2	.240	1.8
	비밀폭로	2.3	0	0	2.5	2.057	1.3	1.1	.006	1.2
	비협동	0	2.3	0	0	2.948	1.3	0	1.119	.6
	속물근성	0	53.5	73.8	60.0	54.657***	37.5	53.9	4.578*	46.2
	서툰 갈등해결	0	2.3	0	0	2.948	0	1.1	.904	.6
	비관대함	6.8	2.3	0	0	5.761	3.8	1.1	1.258	2.4
	부정적인 외모	4.5	9.3	2.4	0	4.958	6.3	2.2	1.700	4.1
	무례함	0	0	7.1	2.5	6.258	1.3	3.4	.820	2.4
	비우호적	2.3	7.0	0	0	5.944	1.3	3.4	.820	2.4
	높은 지능	0	4.7	0	0	5.931	1.3	1.1	.006	1.2
	낮은 지능	4.5	7.0	2.4	10.0	2.377	6.3	5.6	.030	5.9
	협담	0	0	2.4	7.5	6.670	0	4.5	3.683	2.4
	수다	0	2.3	0	2.5	2.102	1.3	1.1	.006	1.2
	높은 자아개념	0	0	0	5.0	6.527	2.5	0	2.252	1.2
낮은 자아개념	0	2.3	2.4	5.0	2.267	2.5	2.2	.012	2.4	
전체 [†]	18.2	69.8	73.8	70.0	37.587***	52.5	61.8	1.489	57.4	
정서 조절	과운동	11.4	0	0	0	14.638**	6.3	0	5.732*	3.0
	서툰 정서조절	2.3	14.0	11.9	2.5	6.762	6.3	9.0	.445	7.7
	서툰 분노조절	2.3	7.0	2.4	2.5	1.981	1.3	5.6	2.347	3.6
	전체 [†]	15.9	20.9	11.9	5.0	4.784	13.8	13.5	.003	13.6
적응	사회적 위축/부끄러움	0	2.3	4.8	0	3.742	1.3	2.2	.240	1.8
	과잉행동	0	0	7.1	0	9.235*	2.5	1.1	.458	1.8
	전체 [†]	0	2.3	9.5	0	8.926*	3.8	2.2	.331	3.0
권위관계	어른의 부적절한 행동	0	2.3	0	0	2.948	0	1.1	.904	.6
기타	부정적인 행동	22.7	7.0	14.3	2.5	9.558*	15.0	9.0	1.459	11.8

*p<.05, **p<.01, ***p<.001

[†]응답내용이 각 하위범주에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빈도로 처리하였으므로 하위범주의 합이 대범주의 수치와 다를 수도 있음. 또한, 중복응답하였으므로 대범주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IV. 논 의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타인과 맺는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또래와의 관계는 그들이 성장했을 때의 적응을 예언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관계 발달의 한 부분으로서 친구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친구를 좋아하고 싫어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과 연령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친구관계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하는 단순한 결과보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친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친구관계의 질을 연구한 학자들은 친구관계의 질에 성차가 있다고 하였으나(Berndt, 1986; Parker & Asher, 1993), 친구관계의 질은 본 연구에서 탐구한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와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연구한 Sharabany, Gershoni와 Hofman(1981)은 친밀한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지식에서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Diaz와 Berndt(1982) 또한 친한 친구에 대한 친밀하고 내면적인 정보 지식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관계에 미치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연령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령에 따른 결과는 연령에 따라 친구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Gottman

(1983)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를 Gottman의 발달이론에 비추어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유아는 같이 놀이를 하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이 시기는 놀이활동에서의 협동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므로 함께 힘을 합쳐 무엇을 이루는 협동이나 함께 어울려 다니는 파벌, 무엇을 잘 주는 관대함 등이 친구와 친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시자(2000)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상대 아동과 놀이를 함께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크게 만족한다고 하였다. Gottman(1983)과 마찬가지로 Howes(1983)도 연령에 따라 친한 친구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4-9세 아동은 자신이 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또래를 친한 친구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Furman과 Bierman(1983)은 친구관계의 기본 요소에는 물질적 지지와 공유활동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Hays(1978)는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로 공유활동, 일반적 놀이, 신체적 특성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유아는 혐오적인 행동을 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또래를 싫어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규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Gottman, 1983) 공부나 운동을 잘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동 즉, 도덕성이 강한 아동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다만, 다른 사람의 규칙위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협담) 아동은 규칙의 감각을 획득하고 규칙위반의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담의 하위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우리문

화에서는 험담이라는 의미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가장 친한 친구의 요건이 험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친한 친구와 제 3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경우 아동은 친구와 함께 험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그 친구가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편, Reisman과 Shorr(1978)는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친구관계에서 놀이의 비중이 약해지고 그 대신 충성심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설명이라고 하겠다.

청소년기에는 관심의 초점이 자기탐구로 옮겨지고 친구와의 친밀함이나 비밀공유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Gottman, 1983), 자신과 생각이 같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릴 때는 또래와의 놀이, 교제, 관심 등이 친한 친구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된다(이시자, 2000; Hymel, Wagner & Burtler, 1990). 본 연구에서 보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로 신뢰관계에 응답한 경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2.3% 정도의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중학교 때 19.0%, 대학교 때 25.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요소를 연구한 Canfield와 La Gaipa(1970)는 진실성, 친밀가능성, 유사성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유사성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는 경우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4.7%에 머물렀으나, 중학생 시기에는 21.4%, 대학생 시기에는 4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즉, 유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중이 커지는 친구관계의 요인이다. 이시자(1999)는 친구관계 형

성에 있어서 유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4-9세의 아동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유아의 경우 서로의 유사성 때문에 친구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우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 서로의 유사성 때문에 친구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발달에 따라 친구관계가 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좀 더 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동한다는 Gottman(198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친구관계의 발달에 관한 Gottman의 이론이 우리나라의 아동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친구관계가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따라 타인에 대한 지각, 특히 친구에 대한 지각이나 개념형성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Furman & Bierman, 1984). 이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의 정도에 따라 타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로 '그냥 좋다'라는 피상적인 응답이 많았는데, 이 역시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의 미발달에 기인한다고 하겠다(Hartup, 1983).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문화권에서의 연구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Rianasari와 동료들(1999)의 연구는 문화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인 지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인 행동은 인도네시아의 아동에게보다는 미국의 아동에게 더 존중되며, 미국의 아동에게 개인주의적인 특질은 긍정적인 특질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로 친구가 개인주의적인 특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Rianasari와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는 관대함과 도움

을 주는 것(특히 학교 과제에 있어서)이 미국의 아동보다 인도네시아의 아동에게 더 가치 있게 여겨졌는데, 본 연구에서도 친구가 도움을 주고 관대한 것이 좋은 친구관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 아동의 결과와 많은 부분 일치하였는데, 이는 비교문화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Rianasari와 동료들(1999)의 분석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화의 특성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는 미국 등의 서구사회보다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양사회의 가치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인도네시아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아동의 발달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의 명백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상이하기보다는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행동에는 문화를 막론하고 상당한 공통성이 있다. 예를 들면, 혐오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모든 문화에서 싫어한다(Rianasari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혐오적인 행동과 공격성(사회적, 언어적, 신체적)이 또래를 싫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Gottman(1983)은 친구관계의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의 조절을 친구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

인으로 보았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발달과 함께 갈등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친구관계의 발달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또래에 대한 기술을 코딩체계에 맞추어 분류하는데 있어서 코딩체계에 구분되어 있는 81개의 하위범주 중 불과 28-38개 정도의 하위범주만이 해당되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한 이유 모두를 포함하려는 코딩체계의 구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가 81가지 정도로 다양하다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응답이 나와도 이를 모두 포함한 분류체계를 만들고자한 코딩체계 연구자의 의도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에 따른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분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응답 내용 중 눈치가 없다, 재수 없다, 부담스럽다, 단순하다, 말이 안 통한다 등은 범주분류가 어려웠는데,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범주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아동의 발달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지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

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

- 43.
- 이시자(1999). 유아기 우정형성과 그 발달적 기능. 논문집(인천전문대학), 31(2), 197-210.
- 이시자(2000).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또래 선호와 우정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5-19.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임연진 · 이은혜(1994).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2(1), 119-131.
- Berndt, T. J. (1986). Children's comments about their friendship. In M. Perlmutter (Ed.),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8)(pp. 189-212). Hillsdale, N J : LEA.
-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pp. 308-331). NY : Wiley.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46-365). NY : Cambridge University.
- Bronfenbrenner, U.(198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nfield, F. E., & La Gaipa, J. J. (1970, April). *Friendship expectations at different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uisville, Kentucky, USA.
- Chen, X., Rubin, K. H., & Sun, Y. (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6), 1336-1343.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 Cambridge University.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Diaz, R. M., & Berndt, T. J. (1982). Children's knowledge of a best friend :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87-794.
- Farver, J. A., Kim, Y. K., & Lee, Y. (1995). Cultural difference in Korean- and Anglo- American Preschoolers' Social Interaction and Pla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6, 1088-1099.
- French, D. C., Waas, G. A., & Tarver-Behring, S. (1986). Nomination and rating sociometric measures : Convergen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Behavioral Assessment*, 8, 331-340.
- Furman, W., & Bierman, K. 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 A multidimensional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 (Serial No. 201).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 Wiley.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ays, D. S. (1978). Cognitive bases for liking and disliking among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906-909.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

- 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Howes, C. (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4), 1041-1053.
- Hymel, S., Wagner, E., & Burtler, L. J. (1990). Reputational bias :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 Cambridge University.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eisman, J. M., & Shorr, S. I. (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Rianasari, M., Pidada, S. U., Nelwan, P. R., & French, D. C. (1999). Indonesian children's descriptions of friends and disliked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ew Mexico.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1981). Girlfriend, boyfriend :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